

번호 22-3

제 목	국문	가임 여성의 자녀 성 선호도와 인식도 및 성 선별 출산 강요 경험에 관한 기초 연구			
	영문	A baseline study of sex preference, cognition of sex difference and experience about forced sex selection in the reproductive aged wome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윤성호, 강영아, 김상규, 황태윤, 이경수, 김석범, 강복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ung-Ho Yun, Young-Ah Kang, Sang-Kyu Kim, Tae-Yoon Hwang, Kyeong-Soo Lee, Seok-Beom Kim, Pock-Soo Kang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역 학() 환 경()	발표자	일반회원() 전 공 의(○)	발표 형식	구 연(○) 포스터()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99년 12월				
<p>1. 연구 목적</p> <p>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는 뿌리깊은 가부장제로 인하여 남자를 더 선호한다. 최근 초음파 기계와 음모막 음모생검 등의 태아성감별 기술에 의한 선택적인 아들 출산은 성비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평균 출생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여자 100명당 108.4명이며, 특히 경북은 113.1명으로써 울산의 113.2명 다음으로 높다. 그 이유는 유교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러한 남아 선호 사상과 성비 불균형 현상은 보건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경주지역에서 실제 출산 가능한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성 선호도 및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하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경상북도 경주시 지역과 읍·면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378명을 대상으로 미리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p> <p>설문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 성 선호도 및 이유, 성 선호도와 관련된 태아성감별이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성비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및 개선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들 선호도는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20대: 6.7%, 30대: 3.0%, 40대 이상: 12.7%),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지역에서(도시: 4.4%, 농촌: 6.0%),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하'인 경우에(상: 2.5%, 중: 4.5%, 하: 10.4%),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에(중졸이하: 7.3%, 고졸: 6.5%, 대졸이상: 2.7%), 직업여부에 따라서는 직업에 없을 때(직업 있다: 3.2%, 직업 없다: 7.3%) 아들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4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였다(아들: 5.6%, 딸: 12.7%).</p> <p>아들·딸에 대한 선호 이유로 아들의 경우, '든든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제사모시기 위해' 순이었고, 딸의 경우, '키우는 재미가 좋아서', '든든하니까' 순이었다.</p> <p>성비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는 아들을 선호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지역일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였다.</p> <p>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성차별하는 사회구조개선'이 35.2%, '의식계몽'이 28.8%였다.</p>					

아들낳기를 강요받은 경험은 시부모에게서 39.4%, 친정부모에게서 37.1%로 나타났고, 이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시부모에게서 강요받은 경험 있다: 48.3%, 경험 없다: 12.8%),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위적 출산을 시도한 비율이 높았다($p < 0.05$).

4. 고찰

연령이 높고, 농촌지역이며, 경제상태가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직업이 없는 가임여성들인 경우에는 아들선호도가 높고, 성비불균형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가 낮아 성비 불균형 현상의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의식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하여 출산하는 현상은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부모의 강요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러한 강요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하여 이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